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 재방문 –
“텍톨로지”와 인류세의 일원론 논쟁*

김수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목 차〉

Ⅰ. 21세기 보그다노프
Ⅱ. 텍톨로지의 기본 구도
Ⅲ. 두 개의 보그다노프
Ⅳ. 자연의 복수와 플라토노프라는 짝패

국문초록

이 글은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의 보편조직학 ‘텍톨로지’를 인류세를 둘러싼 생태사회주의 논쟁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먼저 보그다노프의 ‘동시대적 재방문’을 주도한 워크·체호나드스키·누네스의 작업을 검토해, 노동·물질대사균열·관점주의를 둘러싼 그 해석들의 의의와 문헌학적 한계를 식별한다. 이어 상호조절자·최소량의 법칙·가소성이 뒷받침하는 ‘생태론자 보그다노프’와 기계 기술을 통한 자연의 총체적 조직화를 지향하는 ‘프로메테우스주의자 보그다노프’가 어떻게 하나의 ‘일원론적’ 체계 안에 공존하는지를 추적하고, 이를 이원론과 일원론의 대립으로 형성된 현대 생태사회주의 논쟁과 ‘겹쳐’ 읽는다. 보그다노프 사유의 현재성은 그 정합성이 아니라 내적 어긋남에 있으며, 그 의미는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짝패를 통해 드러난다.

키워드 :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 텍톨로지, 인류세, 맥켄지 워크, 일원론, 물질대사 균열, 자연의 복수, 안드레이 플라토노프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25S1A5A2A01006645)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이 연구는 202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www.kci.go.kr

ⓒ 2026 이화인문과학원

Ⅰ. 21세기 보그다노프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Alexander Bogdanov, 1873~1928)는 20세기 러시아 지성사를 통틀어 가장 독창적이고 다재다능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의학과 자연과학, 경제학과 철학, 소설과 조직이론을 넘나든 그의 사유는 당대에는 레닌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소비에트 시절 내내 억압되었으며, 그 결과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사상사에서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1] 한국에서 보그다노프의 이름은 더욱 낯설다. 이제까지 주로 레닌의 비판 대상으로, 사이버네틱스를 비롯한 시스템 이론의 선구자로, 초기 소비에트 문화운동 조직 프롤레트쿨트(Proletkult)의 창설자나 유토피아 소설 작가 등으로, 특정 측면에 국한된 부분적 조명만을 받았을 뿐 그의 사상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다.[2]

그러나 21세기 들어, 특히 2010년대 이후로 해외 학계에서 보그다노프를 향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맥켄지 워크는 『분자적 레드: 인류세를 위한 이론』에서 인류세라는 조건이 보그다노프를 우리의 동시대인으로 만든다고 선언하면서, 보편조직학 텍톨로지(tektology)를 오늘날 생태위기를 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지적 자원으로 부각시켰다. “인류세는 보그다노프를 우리의 동시대인으로 만들며, 텍톨로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3] 또한, 혁명 이후 소비에트 사상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마리아 체호나드스키는 『10월 혁명 이후 보그다노프와 지식의 정치학』에서 보그다노프 사상의 진면목을 소비에트 인식론의 맥락에서 새롭게 고찰했다.[4] 그런가 하면 로드리고 누네스는 「조직화의

1) 보그다노프의 생애와 사상 전반에 대한 소개는 김수환 (2026a)을 참조하라.
2) 국내 보그다노프 관련 연구는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시스템 이론의 선구자로서 다룬 연구(권세은 (2006), 이득재 (2015)), 둘째, 프롤레트쿨트 주창자로서 다룬 연구(최진석 (2017)), 셋째, 『붉은 별』을 중심으로 한 소설 연구(김성일(2017), 김민아 (2020))가 있다. 서지는 참고문헌 참조.
3) McKenzie Wark (2015), *Molecular Red: Theory for the Anthropocene*, Verso, p. 48.
4) Maria Chehonadskih (2023), *Alexander Bogdanov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Palgrave Macmillan.

www.kci.go.kr

관점에서: 보그다노프와 아우구스티누스적 좌파」에서 텍톨로지의 핵심 개념들이 인류세를 둘러싼 동시대의 논의에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통찰의 지점들을 상세히 검토한 바 있다.[5)]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보그다노프의 '동시대적 재방문'이 단지 학술적 복원 작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기후-생태 위기로 대변되는 우리 시대의 긴급한 현안들과 관련해 보그다노프 사상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동시대 생태학적 사유의 여러 갈래들 가운데 그것의 자리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로서, 과거의 사유가 '이론적 자원'이 되어 후생(後生)을 얻는 방식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글의 목적은 국제적인 보그다노프 재방문의 흐름에 참여하면서, 그와 같은 시도의 의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려는 것이다. 지면의 한계 상 보그다노프 사상의 전모를 다룰 수는 없기에 주로 '자연'을 키워드로 한 논의에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의 사상은 극도로 넓고 다면적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류세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조직화와 환경의 관계에 관한 보그다노프의 사유는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또한 어떤 지점에서 동시대 생태학적 사유들의 대립 축을 형성하는 주요한 이론적 쟁점 및 딜레마를 예표하고 있는가?

II. 텍톨로지의 기본 구도

1. 조직화와 동적 평형

『경험일원론: 철학논고』(1904~1906)에 표명된 초기 보그다노프의 사유가 '관계주의적' 방향을 향해 있었다는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의

5) Rodrigo Nunes (2025), "From the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Bogdanov and the Augustinian Left, Part 1," *e-flux journal* 152; "Part 2," *e-flux journal* 153.

www.kci.go.kr

출발점은 개체가 아니라 '힘'이라는 물리적 속성인 바, 독립적 실체처럼 보이는 것은 활동-저항의 연쇄에서 하나의 결절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자연은 정적인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복잡한 연결 및 접속 과정의 '흐름'으로서, 신체는 그 흐름들의 장이라 할 '환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관계에 선행하는 실체란 없으며, 개체란 그 자체로 이미 복합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6]

이 정도의 서술만으로도 이미 동시대의 사유가 어떤 측면에서 보그다노프의 유산을 재발견하게 됐을지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인류세, 신유물론, 비인간적 전회 등을 둘러싼 오늘날의 유행하는 담론들은 한 세기 전의 사상에서 몹시 익숙한 얼굴을 한 '오래된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담론 사이에서 일정한 대응과 공명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과 과거를 후자를 위한 유효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똑같지 않다. 전자의 경우 흔히 과거가 현재의 정당화를 위해 선택적으로 추출될 위험이 있는 반면, 후자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양편 모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성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과거의 담론을 그것이 배태된 고유한 맥락 속에서 온전히 복원해내고, 현재와의 거리를 염두에 둔 채 그것의 현재적 위상을 가늠하는 일이다.

보그다노프의 경우 그 작업은 그가 '텍톨로지(tektology)'라는 이름으로 완성해낸 보편조직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될 수밖에 없다. 마흐주의의 영향 하에서 정립되었던, 요소들의 관계에 관한 그의 초기 사유는 결국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 조직학'의 원대한 기획으로 종합되었기 때문이다.[7] 따라서 보그다노프의 관계 존재론을 오늘날의 각종 (새로운) 존재론과 나란히 놓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의 '조직(화)' 개념의 전개를 정밀하게 추적해 그것이 지향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져보는 일

6) 보그다노프의 '경험일원론'에 대해서는 Chehonadskih (2023), pp. 30~31 참조.
7) 『경험일원론: 철학논고』는 1904~1906년에 총 3권으로, 『살아 있는 경험의 철학』은 1913년에 출간되었다. 『보편조직학: 텍톨로지』는 1913년에 1부가, 1917년에 2부가 나왔고 1922년에 3부가 출간되었다. 서지는 참고문헌 참조.

www.kci.go.kr

이다.

그렇다면, 텍톨로지의 관점에서 조직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텍톨로지가 기초하는 명제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모든 것은 '조직되어' 있는 동시에 '조직한다'는 것이다.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조직화를 산출하는 행위로 사유될 수 있으며, 그 행위는 스스로의 조직화를 포함한다. 즉, 우주 전체가 자기 부분들의 부단한 조직화·탈조직화·재조직화로 이루어진 '자기조직적 현상'[8]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포괄적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조직화 과정의 실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일이다. 조직화 원리의 핵심에는 '활동(активность)과 저항(сопротивление)'이라는 근본 대립쌍이 놓여있다. 최대한 간략히 말해서, 조직화가 성립되는 것은 '활동' 쪽의 실천적 총합이 '저항' 쪽을 상회하게 될 때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활동과 저항을 야기하는 '결합'의 방식인데, 보그다노프에 따르면, 조직된 전체가 실제로 자기 부분들의 단순한 합보다 실천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것이 지닌 활동들이 그것들에 맞서는 저항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결합되기 때문"[9]이다. 요컨대 조직성이란 실체의 속성이 아니라 활동과 저항을 야기하는 결합 방식의 문제이며, 실천적 총합이 저항 쪽에서 더 커지게 되면 '탈조직성'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활동-저항 개념 쌍의 결정적인 성격은 그것이 상관적이라는 데 있다. 한쪽의 활동이 다른 쪽에게 저항이 되고, 하나의 시스템에게 조직화의 이득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시스템에게는 손실로 보인다. 보그다노프는 이를 '투쟁하는 두 군대'에 비유하는데, 만일 "두 군대나 두 계급이 투쟁에 가담하고 있다면, 각 진영의 활동은 상대방에게 저항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단지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10] 보그다노프의 조직화의 관점이 일종의 '관점주의(perspectivism)'를 전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8) Alexander Bogdanov (1984), *Essays in Tektology: The General Science of Organization*, George Gorelik (trans.), 2nd ed., Intersystems Publications, p. 6.
9) А. А. Богданов (1989), Тектология: Всеобщ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наука, в 2-х кн., Экономика, 1권, p. 117.
10) Bogdanov (1984), p. 42.

www.kci.go.kr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누네스에 따르면, 보그다노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능동적이면서 수동적이고, 주체이면서 객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위주체성(agency)의 거대한 보편적 평등화를 함축"하게 된다.[11]

한편, 조직화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조직화의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복합체든 그 부분들 사이의 '내적 관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전체로서의 '환경'의 관계, 곧 모든 '외적 체계들'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관찰한다는 것을 뜻한다.[12] 보그다노프를 훗날 '시스템 이론'으로 알려지게 될 분야의 선구자로 위치시키는 이 측면이 생태학적 함의를 지니게 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체는 일종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그것이 속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공진화하기 때문이다.

이 정식화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평형'에 관한 물음을 도출한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균형이 존재할 수 없는, 중단 없는 '과정'으로서의 시스템에게 허용될 수 있는 평형이 있다면 단지 "언제나 근사적이고 실천적인(practical) 것" 뿐이다.[13] 어떤 개체가 보존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조직화의 손실과 이득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작아서' 그것이 관찰되는 '시간'과 세부 수준의 '규모(scale)' 내에서 그것이 충분히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다. 결국, 시스템이 겪는 과정이란 주변 환경이 가하는 탈조직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현재의 복합체로 유지해 나가는 과정, 곧 존재가 스스로를 유지하려 애쓰는 (언젠가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라고 불렀던) 활동과 다름없다. 바로 이것이 보그다노프가 말하는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14]이다.

11) Nunes (2025), Part 1, p. 05. 누네스는 보그다노프의 활동-저항 개념이 완벽하게 '비도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들뢰즈-스피노자와 연결시킨다. "만일 자신과 세계를 조직하는 것이 다른 것들의 탈조직화(해체)를 의미한다면 절대적인 의미에서 선하거나 악한 행동이란 존재할 수 없다. […] 그 어떤 관점도 특권화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언제나 서로를 구성하는 관계들이 존재하게 되는 바, 비록 그것이 다른 것들의 분해를 의미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지가 명시되지 않는 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12) Nunes (2025), Part 1, p. 4.

13) Bogdanov (1984), p. 79.

www.kci.go.kr

이렇게 보자면, '탈조직화의 위협'이라는 앞선 표현의 배후에 놓인 맥락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굳이 생태 위기를 떠올릴 필요도 없이, 이미 보그다노프 시대에 그것은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얻은 바 있다. 보그다노프 사상에 드리워진 "좀 더 음울하면서도, 아마도 보다 더 진실한" 다른 흐름이라고 누네스가 지적하는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는 "만일 우주적 과정이 엔트로피의 지속적 증가를 통해 안정적 평형을 향해 간다는게 참으로 판명된다면, 우리 국면에서의 우주 전체의 생명 또한 [보그다노프가 '감쇠fading'라 부르는 종류의]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보그다노프가 말한 "자연 과정의 보편적 비가역성"조차도 "궁극적 탈조직화의 가차 없는 전진에 의해 결국 소멸되고 말 것"[15]이라고 쓴다.

물론 보그다노프의 조직론에 이처럼 (생태) 위기의 그림자를 드리워,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체념한 비체념(resigned irresignation)'의 스탠스[16]로 간주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누네스가 말하는 '우주적 비극'의 차원, "탈조직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엔트로피는 증가하며, 타협 불가능한 한계가 존재하고, 행동과 무위 모두에 되돌릴 수 없는 비용과 효과가 따르는 우주"[17]에 대한 자의식이 보그다노프에게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상을 현재의 맥락에 곧장 '이어붙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서술에는 유의할 필요

14) 원어는 подвижное равновесие인데, 앞의 형용사는 동역학적이라는 의미의 динамическое가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의미의 подвижность에서 온 것으로, 정확하게 옮긴다면 the equilibrium in flux(유동 중의 평형)에 가깝다. "보존이란 언제나 발생하는 각각의 변화가 그 자리에서 반대되는 다른 변화에 의해 상쇄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다. 그것이 변화들의 동적 평형이다." Богданов (1989), 1권, p. 197.

15) Nunes (2025), Part 1, p. 3.

16) 노버트 위너가 '아우구스티누스적 악마'라고 부른 것, 곧 질서의 적대자가 아니라 그 부재로서의 엔트로피에서 온 표현이다. 최종 평형의 환상 없이, 모든 조직화가 어딘가에 탈조직화를 전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자의 파토스를 가리킨다. 누네스는 이를 T. J. 클라크의 마니교적 좌파(결단의 시간 앞에 선 영웅의 형상)와 구별하여, 승리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 곧 존재하는 것에 마음 쓰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싸우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좌파(우주적 비극 앞에 선 조직자)의 태도로 규정한다. Nunes (2025), Part 2, p. 5.

17) Nunes (2025), Part 2, pp. 4~5.

www.kci.go.kr

가 있다. 누네스가 상당부분 주변화시킨 반면, 워크가 집요하게 천착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측면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런 정식화는 아직은 너무 성급하고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 그 측면이 바로 '노동'의 문제다. 보그다노프의 조직화 이론은 그 자체로 '노동에 관한 이론'이기에 이 문제는 결코 누락될 수 없다.

2. 노동의 관점과 물질대사 균열

'노동의 관점'은 조직화만큼이나 일관되게 마르크스주의자 보그다노프의 사유를 특징짓는 핵심 키워드다. 워크에 따르면, 보그다노프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을 노동의 관점으로 파악"했는데, 그의 "독창성 가운데 하나는 마르크스의 중심 교의가 변증법도, 유물론도, 정치경제학 비판도 아닌 노동의 관점이라고 주장한데 있다."[18] 보그다노프를 평생 사로잡은 문제의식이 '노동 고유의 관점에 입각한 조직화'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보그다노프는 텍톨로지를 원칙상 분과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했다. 그가 보기에 절대적이고 영원한 철학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19] "학문들의 사이클의 완성"으로서의 텍톨로지는 "철학과 달리 자연과 노동과 사고 속의 이질적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식론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결합에 대한 실천적 숙달을 제공한다."[20] 보그다노프가 텍톨로지를 철학을 넘어선 실천적 작업으로 간주하는 까닭은 그것이 경험과 더불어 노동(의 관점)이라는 강력한 '세계관'의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세계관은 그것을 산출한 계급의 경험을 형식화한 것인데,[21] 이때 그

18) Wark (2015), p. xvii; p. 61.
19) Alexander Bogdanov (2016), *The Philosophy of Living Experience: Popular Outlines*, David G. Rowley (trans.), Brill, p. 13. "역사가 새롭고 장대한 과업을 맡긴 강력한 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새로운 철학 또한 필연적으로 출현한다." p. 10.
20) Chehonadskih (2023), p. 62.
21) "한 계급의 철학은 그 집단적 의식의 최고 형태이다." Bogdanov (2016), p. 13.

www.kci.go.kr

세계관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인과성의 이론'이다. 과거의 두 단계를 거쳐 공산주의가 도달할 것이라 보그다노프가 예견했던, 그렇기에 실천적으로 재조직해야한다고 여겼던 세 번째 인과성의 단계가 바로 '노동의 인과성(labor causality)'이다.

보그다노프의 '인과성의 이론'을 최대한 간략히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권위적 인과성(authoritarian causality)'은 결정하고 명령하는 '조직자(organizer)'와 그것을 따르는 '실행자(executor)'의 분할에 근거해 보이지 않는 권위를 원인으로 불러내며(ex: 종교, 봉건제), 두 번째 단계인 '추상적 인과성(abstract causality)'에서는 시장 생산자들이 투쟁 아래 감추어진 사회적 협업을 보지 못한 채 그 힘을 "텅 빈 벌거벗은 추상적 필연성"으로만 파악한다(ex: 자본주의). 오직 마지막 단계인 '노동의 인과성'에서만 권위와 필연이 빠진 자리를 대신하는 "조직된 동지적 협업에 기초해 인간들에 대한 경제적 관계의 권력이 극복"된다. 그것은 조직자와 실행자 사이의 오랜 분할이 마침내 무너지는 곳에서 "집단적 노동의 경험" 자체로부터 출발한 세계관이다.[22]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 노동의 문제가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따로 있다. 마르크스주의자 보그다노프에게 '노동'이 애초부터 '자연'과 뗄 수없이 결합된 개념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은 결코 추상적 실체가 될 수 없다. 노동이 저항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 곧 노동의 무대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이다. 보그다노프가 『살아 있는 경험의 철학』에서 유물론을 다루는 1장을 여는 첫 문장은 이를 명백히 선언한다. "자연이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동-경험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이라 부르는 것이다."[23] 요컨대, 자연이 먼저 있고 노동이 뒤늦게 그와 관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보그다노프에게 그 둘은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는 개념으로 사유될 수 없는, 역사적으로 함께 생산된 개념이다. 같은 장의 결론에서 보그다노프는 이 상호 규정을 한 문장으로 총괄한다. "경험의 체

22) Bogdanov (2016), pp. 205~206.
23) Bogdanov (2016), p. 42. 제1장 「유물론이란 무엇인가」의 첫 문장이다.

www.kci.go.kr

계는 곧 노동의 체계다. 그 모든 내용은 인류의 집단적 실천의 범위 안에 놓인다."[24]

워크 또한 지적하듯이, 노동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보그다노프식 관점의 선구적인 측면은 그것을 에너지의 개념과 연결시키는데서 드러난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는 실체도 관념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의 발견은 노동장치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연과 맺는 실천적 관계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에 가해지는 '노동 활동'의 결과물인 것이다.[25] 워크는 "지금까지의 모든 유물론의 주요 결함은 대상, 현실, 감성이 오직 관조의 형태로서만 파악되고, 감성적인 인간 활동이나 실천으로서 주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마르크스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한다. "노동의 관점은 하나의 일원론이다. 그러나 복수의 능동적 과정들의 일원론이다. 자연이란 노동이 마주침 속에서 붙잡는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 특수한 방식으로 붙잡는 것이다."[26]

결국 보그다노프에게 자연은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외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노동의 매개를 통한 실천적 활동의 결합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포착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그다노프를 동시대의 지평으로 끌어오려는 워크의 시도가 분명한 이론적 맥락 하나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세를 둘러싼 오늘의 논쟁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맥락은 바로 마르크스의 '물질대사균열(metabolic rift)'론이다. 주지하듯이, 마르크스의 『자본』 1권과 3권에서 제시된 이 개념이 벨라미 포스터를 위시한 생태사회주의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지 대략 사반세기 만에, 그것은 생태나 환경을 둘러싼 동시대의 거의 모든 담론이

24) Bogdanov (2016), p. 62.
25) Bogdanov (2016), p. 202. "조수나 석탄 한 덩이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함유한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현상을 완전히 장악해 노동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활용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일이다." p. 204.
26) Karl Marx (1973), "Concerning Feuerbach," *Early Writings*, Penguin, p. 421; Wark (2015), pp. 19~20에서 재인용. 이어지는 워크 자신의 정리는 Wark (2015), p. 19.

www.kci.go.kr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론적 메타언어 같은 것이 되었다.[27] 보그다노프를 '인류세 시대의 사상가'로 (다시)읽으려는 워크의 작업 또한 이런 지적 맥락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워크는 『분자적 레드』의 서문에서, 소비에트 면화산업을 위해 거대한 관개사업을 벌여 예전 크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버린 아랄해의 폐허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이것은 마르크스를 따라 우리가 물질대사 균열이라 부를 만한 것의 한 예다"라고 쓴다. 그에 따르면, "소비에트 시대의 아랄해 경험은 이제 지구적 규모가 된 우리의 물질대사 균열 실험의 축소판이다."[28] 이어지는 1장에서 워크는 텍톨로지의 의의가 "우리의 물질대사 균열", 그러니까 '탄소해방전선(Carbon Liberation Front)'에 맞서기 위한 사상적 자원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탄소해방전선의 시대에 텍톨로지는 물질대사 균열에 맞서는 사회적 노동을 조율해야 할 절박한 필요를 예표(prefigure)한다."[29] 탄소해방전선이란 워크가 창안한 독특한 개념으로, 화석연료 기반 자본주의가 지질학적 시간(수억 년) 동안 지하에 저장되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함으로써 지구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리킨다. 워크가 보기에, 우리 시대는 모든 해방전선들의 실패를 배경으로 탄소해방전선의 부상을 마주하고 있다.

18·19·20세기의 모든 해방운동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한계 없이 성

27) 물질대사 균열은 마르크스가 맬서스주의 비판을 위해 독일의 농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를 살펴보던 중 창안한 개념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공급된 에너지원이 소비 후 농촌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버려져 템스강의 수질과 농촌 토양이 동시에 악화되었다는 리비히의 논증은, 마르크스에 의해 대규모 토지 소유와 대규모 산업화가 "사회적 물질대사의 상호의존적 과정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초래한 사태로 재개념화되었다.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생태학』(2000)에서 이를 마르크스 이론의 생태적 계기를 부각시키는 핵심 테제로 들여왔다. 이 개념의 도입과 전개, 그리고 좌파생태학 진영 내부의 갈라짐에 관해서는 최병두 (2022) 2절과 Kohei Saito (2023), *Marx in the Anthropocene: Towards the Idea of Degrowth Commu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1~42 (국역본: 고헤이 사이토 (2025), 『인류세와 마르크스: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추선영 (역), 두번째테제, 33~82쪽)를 보라.

28) Wark (2015), p. xiii.

29) Wark (2015), p. 29.

www.kci.go.kr

> 공했다. 그것은 한 국민을, 한 계급을, 한 식민지를, 한 젠더나 섹슈얼리티를 해방시키지 않았다. […] 그것이 해방시킨 것은 화학적인 것, 하나의 원소, 곧 탄소였다. 인류세의 중심 주제는 탄소해방전선의 이야기였고 지금도 그러하다.[30]

마치 '비인간[탄소] 행위성'이라는 유행하는 패러다임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개념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그다노프를 물질대사균열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문헌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워크 본인의 생각일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가령, 『텍톨로지』에는 마르크스가 쓴 용어인 물질대사(Stoffwechsel)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обмен веществ)가 총 여섯 차례 등장하지만,[31] 단 한 번도 단절이나 균열(rift)에 준하는 표현을 동반하지 않는다. 보그다노프가 "[…]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조직화로서의 경제와 환경으로서의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의 단절' 문제를 파악했다"[32]는 워크의 주장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보그다노프의 '소설들'에 의거한 추정일 뿐이다. 워크가 보기에, 보그다노프가 자신의 소설들에서 묘사한 "혁명 이전의 화성은 본질상 21세기 지구가 탄소해방전선의 승리 이후 실제로 다다르게 된 곳과 다르지 않다."[33]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보그다노프의 시대(소비에트 초기)를 현재 진행 중인 사태의 '축소판'으로 보는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34]

하지만 그와 같은 평행관계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소설의 장면들에 근거해 보그다노프 사상의 이론적 핵심을 추론하는 일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니다. 『텍톨로지』 3부작의 저자는 『붉은별』의 작가와는 비교할 수

30) Wark (2015), p. xiv.
31) 『텍톨로지』 전권에서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Богданов (1989), 1권, pp. 72, 77, 122, 176, 198; 2권, p. 126.
32) Wark (2015), p. 48.
33) Wark (2015), p. 8.
34) "초기 소비에트 연방은 하나의 축소판(microcosm)이다. 사유재산의 낡은 법칙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은 혁명적 사회가 '자연과의 인식적 투쟁', 혹은 오히려 자연 내에서의/자연과의 투쟁(들)을 힘겨운 조건 속에서 맞닥뜨려야만 했던 [상황의] 축소판인 것이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축소판이다. 탄소해방전선이 증대되는 물질대사균열, 탈안정화, 그리고 축소된 환경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Wark (2015), p. 55.

www.kci.go.kr

없을 만큼 치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현재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워크 특유의 '전용(轉用)'의 방법론보다 한층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35] 그리고 그 분석은 텍톨로지를 구성하는 보그다노프의 하부 개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Ⅲ. 두 개의 보그다노프

1. 생태론자 보그다노프와 일원론적 우주

앞선 워크와 누네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보그다노프 조직론의 특정 측면을 곧장 현재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것은 거친 대응의 혐의를 받을 공산이 크다. 더 적합하고 안전한 방식은 그의 사상 체계 내부에서 그런 해석의 여지를 내포하는 개념들을 실제로 찾아내, 그것들의 함의를 곱씹어 보는 접근일 것이다. 그렇다면, 조절과 균형의 신봉자, 위기와 파국을 경고하는 '시스템주의자' 보그다노프의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 '상호-조절자(bi-regulator)' 개념을 꼽을 수 있다. 본래 "두 개의 복합체가 서로를 상호 조절하는 결합"의 기제를 가리켰던 보그다노프의 이 개념은, 주지하듯이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개념의 선취로 받아들여졌다. 1989년 러시아판 편집자 서문에 따르면 "보그다노프는 사이버네틱스의 근본 관념 가운데 하나인 피드백(обратная связь) 관념(그의 용어로는 상호조절자)을 선취했을 뿐 아니라, 사이버네틱스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스 애쉬비와 동일한 예시들로 그것을 예증하고 있다."[36]

35) 전용(détournement, diversion)은 기 드보르가 주장한 방법론으로, 과거의 모든 문화와 지식을 공유재(commons)로 바꿔놓기 위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천을 가리킨다. 워크는 보그다노프의 사상을 '노동'의 관점에서 '철학'을 전용했던 사례로 보고 있으며, 자신의 작업 또한 그러한 전용의 연장선에서 파악하고 있다.

36) Богданов (1989), 1권, p. 11. 보그다노프가 드는 사례는 증기기관(주행 속도와 증기압이 서로를 조절), 0도에서의 물-얼음 평형계, 그리고 사회조직에서의 '상호 통제' 체계다. 2권, p. 97.

www.kci.go.kr

한편, 더욱 명시적인 두 번째 개념은 '최소량의 법칙(law of the minimum)'이다. 이것은 전체 체계의 안정성이 매 순간 모든 부분들의 최소 상대적 저항에 달려 있다는 것, 쉽게 말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이다.[37] 흥미로운 것은 이 개념의 출처가 (앞서 마르크스가 그로부터 물질대사균열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인) 리비히라는 사실이다. 본래 식물의 생장이 가장 부족한 양분 하나에 의해 제한된다는 농학 법칙을 의미했던 이 개념은 보그다노프에 의해 모든 복합체에 적용되는 보편 법칙으로 격상된다.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가소성(plasticity)'이다. 보그다노프 조직론의 잘 알려진 개념인 '요소성(elementality)'[38]에 비해 훨씬 덜 언급되는 이 개념은 복잡화 개념과 함께 그의 조직화 이해의 핵심을 이룬다. 가소성이란 "복합체가 맺는 연결의 유동적이고 유연한 성격, 그 요소들을 재편성하기 쉬운 성질"을 가리킨다. 그런데 "복합체가 가소적일수록 조합가능성이 더 커지고, 새로운 조건에 대한 적응도 더 빠르고 완전해진다." 결국 조직의 복잡화와 가소성은 조직화의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는 뜻인데, 보그다노프는 "대체로, 조직이 높을수록 그것은 더 복잡하고 더 가소적"이라고 요약한다. 이런 가소성의 증대는 불가피한 반대급부를 수반한다.

> 조직의 "연약함(нежность)" 또는 "취약성(уязвимость)"이 그것이다. 요소들의 유동성은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 비교적 쉽게 파괴되는 것 또한 허용하며, 시스템 내적 평형들의 복잡성은 그 평형들의 상대적 불안정성을 동시에 의미하게 된다. 선명한 예증이 인간의 뇌다. 뇌는 생물학적 복합체 가운데 가장 고도로 조직되고, 가장 복잡하며, 가장 가소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하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유해 작용에도 그것들이 접근할 길만 찾아낸다면, 탈조직화된다.[39]

37) Богданов (1989), 1권, p. 217. 보그다노프가 드는 사례는 잠시 잠이 든 장사가 보잘것없는 난쟁이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인체 표면에 0.1밀리미터의 상처가 나서 병원균이 단 일 초 접근하기만 해도 치명적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38) 요소(стихия)에서 온 이 말은 통상 spontaneity(자발성)로 옮겨지나, 이 번역어는 개념의 핵심을 놓친다. 이 단어의 번역문제에 관해서는 Chehonadskih (2023), pp. 45~48를 참조.

www.kci.go.kr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텍톨로지적 모순" 가운데 하나다. "어떤 한 방향에서의 조직성의 증대는 다른 방향들에서의 그것의 감소를 대가로 한다."[40]는 것, 누네스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조직화란 언제나 어떤 다른 장소로의 탈조직화와 엔트로피의 전이를 수반하는 국지적 현상"으로서, "완전하고 이상적인 조직화란 자연 속에 존재할 수 없으며, 언제나 탈조직화가 얼마간 그것에 혼입되어 있다"[41]는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는 시스템의 확장과 발전을 일방적으로 확신하거나 긍정하지 않는다. 조직화는 한계를 지니며 반대급부를 동반한다. 그것은 상호조절을 필요로 하며, 최소량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가소성의 반대급부인 취약성을 전제로 한다. 외적 영향과 개입 이전에 조직화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와 같은 내적 원리들에 의거해 작동된다는 뜻이다. 이쯤 되면,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를 선구적인 생태(주의)적 사상으로, (생태)시스템의 조율과 피드백을 옹호할 뿐 아니라 그렇지 못할 경우의 파국적 결과까지를 미리 경고했던, 1세기를 앞서간 사유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처럼 보인다.[42]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식론 및 존재론으로서 텍톨로지의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할 때, 특히 그것을 인간-자연 관계를 둘러싼 현재의 담론들과 교차시키려 할 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이 곧장 드러난다. 예컨대, 앞서 말한 조율과 피드백, 위기와 파국의 이슈는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인간집단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 인간은 조직화하고 자연은 조직화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애초 조직

39) Богданов (1989), 2권, pp. 125~126.
40) Богданов (1989), 2권, p. 126.
41) Bogdanov (1984), p. 43; Nunes (2025), Part 2, p. 2.
42) 가령 호주의 환경철학자 에런 가레는 텍톨로지가 생물권과 수권과 대기권을 아우르는 체계 이해로 나아가며, 부적절하게 수행된 경제 발전이 인류 번영의 조건인 자연 형태들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함축했다고 주장한다. Arran Gare (2000), "Aleksandr Bogdanov and Systems Theory," *Democracy & Nature*, 6(3), pp. 341~359.

www.kci.go.kr

화의 개념 자체가 이미 말해준 바 있다. 우주 만물은 조직화의 주체이자 대상으로서 '활동-저항'의 고리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은 조직화의 대상에 머물지 않으며, 그 스스로 조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연이 스스로 조직화하는가라는 물음에 보그다노프는 이렇게 답한다.

> 그렇다, 물론이다. 자연은 위대한 최초의 조직자(великий первый организатор)다. 그리고 인간 자신은 그 조직된 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천 배로 확대해야만 보이는 가장 단순한 살아 있는 세포조차, 조직의 복잡성과 완전성에서 인간이 조직해 내는데 성공한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한다. 인간은 자연의 학생이며, 아직은 매우 미약한 학생이다.[43]

생명의 한계 너머에 놓인 것, 이를테면 무기물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그것은 "조직의 더 낮은 유형과 단계들"일 뿐 그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조직화의 과정들이다.[44] 결국 이것이 뜻하는 바는 "조직의 절대적 부재는 사유 불가능하다"는 것, "완전한 무조직성(Полная не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이란 의미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벌거벗은 무(無)"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오로지 저항 속에서만 사물의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존재의 유일한 통로는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항하며, 저항한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활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조직이 있다. 텍톨로지적 우주모델의 본모습이 이렇게 완성된다.

> 이렇게 현대 과학의 사실들과 관념들에서 출발해 우리는 불가피하게 유일하게 전체적인, 유일하게 일원론적인(монистическое) 우주 이해

43) Богданов (1989), 1권, p. 71.

44) 살아있는 유기적 세계뿐 아니라 무기적 세계(예컨대 결정結晶)조차 '물질대사'의 방식으로 번식하고 운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이 앞서 지적한 대로 물질대사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된 여섯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다(주 32 참조). Богданов (1989), 1권, pp. 72~73.

www.kci.go.kr

> 에 이른다. 우주는 우리 앞에 상이한 유형과 단계의 조직성을 지닌 형태들이 무한히 펼쳐지는 직물로 나타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테르의 요소들로부터 인간 집단과 항성계에 이르기까지.[45]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는 "에테르의 요소들로부터 인간 집단과 항성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무한히 펼쳐지는 직물"에 관한 이론이다. 그것은 유일하게 전체적인 "일원론적인 우주 이해"에 해당한다. 생태주의를 둘러싼 동시대의 이론적 논의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대목에서 강한 기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일원론(monism)'과 '이원론(dualism)'은 앞서 언급한 '물질대사 균열' 담론과 함께 동시대 논의의 가장 첨예한 이론적 쟁점을 구성하는 용어들이다. 가장 거칠게 말해, 그 대립구도는 포스터와 무어 사이에 그어지는데, 무어가 포스터를 위시한 물질대사균열 학파의 입장을 자연과 사회를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연장이라 비판한다면, 포스터 진영은 무어의 '세계생태론'적 입장이 비판과 저항에 필수적인 모든 '구별'을 무화시켜버리는 무책임한 '일원론'이라는 역비판을 행하고 있는 형국이다.[46]

동시대 이론적 쟁론의 세세한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앞선 논의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몹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곧장 눈에 들어온다.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가 양 편 모두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워크가 보그다노프는 자기 나름대로 '물질대사균열'의 가능성과 그것의 파국적 결과를 예감했다고 쓸 때, 그는 분명 포스터 편에 서서 그를 해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누네스가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가 '행위주체성의 거대한 보편적 평등화'와 그에 따른 '관점주의'를 함축하게 된다고 쓸 때, 그는 라투르를 경유한

45) Богданов (1989), 1권, p. 73.

46) 이 논쟁을 둘러싼 상세한 구도에 관해서는 이광근 (2022), 「21세기 초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의 쟁점들: 물질대사 균열 비판과 반비판」, 『경제와사회』, 133, 특히 371~384쪽을 참조하라.

www.kci.go.kr

무어의 일원론에 현저히 가까워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를 양 편 어느 한쪽으로 판정해 정확하게 정의내리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 더 생산적인 접근은, 그에게 양 편 모두의 입장과 관점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직시한 채로 그와 같은 공존이 야기할 수 있는 모순과 긴장의 지점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과거의 이론은 자신의 정합성과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의 내적 어긋남과 불완전함을 통해 현재의 담론에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히 살펴봐야만 하는 대목이 바로 기계(주의)와 관련된 보그다노프의 언급들이다.

2. 세계적 에그레션과 기계(주의)의 문제

기계에 관한 보그다노프의 논의는『텍톨로지』2권 6장 2절에 등장한다. 6장의 제목은「중심주의적 형태와 골격적 형태」인데, 텍톨로지의 핵심 하부개념쌍인 '에그레션(egression)'과 '데그레션(degression)'을 다루고 있다.[47] '에그레션-데그레션'의 쌍은 계열적 분화가 낳는 두 가지 형태유형으로서, 에그레션이 활동을 하나의 '중심'에 집중시킨다면, 데그레션은 활동을 (골격을 통해) '고정'하여 체계를 지탱한다. 그런데 에그레션의 중대한 특징은 그것이 "세계적 규모까지 펼쳐지고 우리 경험의 모든 영역을 장악한다"[48]는데 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보그다노프가 도입하는 용어가 바로 "세계적 에그레션"[49]이다. 그리고 바로 이 용어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

47) 1권에서 논의했던 '인그레션(ingression)-디스인그레션(disingression)' 쌍과 다르다. 이 쌍은 조직화의 기본 메커니즘으로서, 전자가 매개가 되는 공통 요소를 통해 활동들이 결합하여 '연결고리'를 이루는 과정이라면, 후자는 그것의 역방향으로, 그 활동들이 서로를 마비시켜 조직적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48) Богданов (1989), 2권, p. 99.

49) 고렐릭의 영어본에서는 이것을 '보편적 에그레션(universal egression)'으로 옮겼고, 그에 따라 누네스도 '보편적'으로 적고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어 원본에 따라 '세계적'으로 바꿔 옮긴다.

www.kci.go.kr

> 세계적 에그레션(мировая эгрессия)이란 인류와 외적 자연의 연결이다. 인간 집단은 그 모든 실천과 인식에서 나머지 자연에 대한 조직적 중심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연을 "종속"시키고, 자기 힘과 경험이 닿는 만큼 자연 위에 "군림하고" "지배한다." 이 표현들은 은유다. 사회생활에서, 권위적 형태들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표현되는 것은 실제의 연결이다. 노동과 사유 속에서 세계적 에그레션이 구축되며, 그 경계는 끊임없이 확장된다.[50]

보다시피, 종속, 군림, 지배 따위의 표현들이 쏟아지듯 등장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집단의 관계가 규정되고 있다. 당연히 이 표현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생태론자 보그다노프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사실 이 대목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영역본 Essays in Tektology의 1장 「조직과학이란 무엇인가」의 첫 문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요소들과의 투쟁에서 인류의 목표는 자연에 대한 지배이며, 지배란 조직하는 자와 조직되는 것 사이의 관계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류는 자연을 통제하고 정복하며, 이는 곧 한 걸음씩 우주를 조직한다는 뜻이다. 자기를 위해, 자기 이익 안에서."[51]

주목할 것은 보그다노프가 이 표현들 모두를 인용부호로 묶고 있으며, 그것들이 "권위적 형태들에서 가져온" "은유"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누네스가 바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표현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형태의 사회 조직이 텍톨로지적 현상을 부적절하게 명명한 은유일 뿐"이며, 만일 "이전 역사 시기들의 페티시 없이 바라본다면, '세계적 에그레션'으로서의 인류라는 개념은 […] 인간이 […]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 가장 큰 조직화의 힘을 지닌 복합체임이 드러났다는 단순한 사실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52]라고 덧붙이고 있는 이유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누네스의 이런 관점은 보그다노프의 활동-저항 개념 쌍을 '도덕

50) Богданов (1989), 2권, p. 124. 이탤릭 강조는 인용자.
51) Bogdanov (1984), p. 1.
52) Nunes (2025), Part 2, pp. 1~2.

www.kci.go.kr

적인' 방식으로 독해하려는 그 어떤 여지도 차단하려 했던 앞선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해 가장 큰 조직화의 힘을 지닌 복합체임이 드러났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인류세의 개념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눈길을 잡아끄는 대목은 (누네스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이어지는 다음 대목이다. 보그다노프는 노동집단이 한걸음씩 우주를 조직화해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되는 단일한 시스템, 곧 (세계적) 에그레션이 "특히 중요하게도, 연쇄적 에그레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에그레션이 연쇄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핵심은 그것이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만 가능했던 일이라는데 있다. 보그다노프가 말하길, 동물들도 인간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위 환경의 여러 활동과 저항을 장악하지만 그 에그레션을 "연쇄적으로 만드는 일", 즉 "외적 활동의 어떤 복합체들을 장악하고 그것들을 매개로 다른 복합체들을 지배하는 일"은 오직 인간에게만 가능했다. 동물은 오직 "제 신체 기관을 통해서만 환경의 요소들을 자신을 위해 조직"할 수 있지만, 인간은 "기관의 도움으로 도구를 부리고, 도구의 도움으로 다른 외적 대상들을 부린다."는 것이다. 보그다노프의 표현으로는 "에그레션에 고리가 하나 더 붙은 것"인데, "그 결과는 에그레션의 거대한 확장이며, 기관의 제한성이 동물들에게 지워 놓은 틀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다."[53] 인간에게만 허용된 이 '거대한 확장', 신체 기관의 제한성 바깥으로 나가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무엇일지 추측하는건 전혀 어렵지 않다 그것은 기계(기술)이다.

> 이 점에서 인류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을 겪었다. 수공 생산에서 기계 생산으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 기계 생산에서는 인간의 손과 작업 도구 사이에 에그레션의 새로운 고리, 곧 메커니즘이 도입된다. 이로써 에그레션의 새로운 확장이, 그것도 특히 현저한 확장이 이루어진다. 메커니즘은 신체 기관의 생물학적 제한성에서 자유로우며, 한 번에

53) Богданов (1989), 2권, p. 124.

www.kci.go.kr

> 무한정 많은 수의 도구를 부릴 수 있다. 나아가 에그레션은 메커니즘들의 연쇄 형태로도 펼쳐지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을 작동시키거나 조절한다. 이렇게 기계 기술은 인류의 처분 아래 자연의 활동들이 무한정(неограниченно) 증대하며 집중될 조건, 세계를 인류의 권력 아래 조직할 조건을 만들어 낸다.[54]

기계 기술 도입의 의미를 말하는 이 대목(2절 말미)의 이례적인 낙관적 어조는 대단히 도드라진다. 왜냐하면 이 대목의 앞부분(2절 서두)에서 에그레션의 한계를 논하면서 보그다노프는 "에그레션이 그 본성상 제한되어 있다"고 썼기 때문이다. 에그레션의 연쇄에서 "모든 상위 고리와 그에 직접 연결된 하위 고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에그레션적 낙차(эгрессивная разность)가 존재"하는데, 이 낙차는 조직화의 하위 고리로 내려갈수록 불가피하게 '연쇄적 약화'와 '체계적 모순의 축적' 같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55] 그리고 이어지는 뒷부분(3절)에서 데그레션이 논의되는 맥락도 그와 같은 조직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다[56]. 유독 기계를 논하는 이 대목에서 보그다노프는 "무한정"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에그레션의 한계를 조건짓는 여러 측면 가운데 기계 기술이 실제로 해소해주는 것은 신체 기관의 생물학적 제한성 극복 한 가지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기계를 둘러싼 이런 전망은, 누네스도 지적하듯이, "보그다노프 사상에서 가장 (그리고 어쩌면 정당한 근거 없이) 낙관적인 측면 중 하나다. 산업의 발전과 노동의 숙련도 저하 사이의 연관성이나, 훗날 질베르 시몽동이 발전시킨 기술적 소외 같은 개념과는 반대로, 보그다노프는 현대의 기계 장치 속에서 형성 중인 해방을 보았다."[57]

54) Богданов (1989), 2권, p. 125. 이탤릭 강조는 인용자.
55) Богданов (1989), 2권, pp. 114~118. '연쇄적 약화'란 사슬이 길어질수록 하위고리들이 중심복합체에 의해 점점 덜 규정되는 결과를 말한다.
56) 데그레션의 역할은 가소성의 대가를 감당하는 것이다. 가소성의 증대가 수반하는 취약성을 상쇄하기 위해 더 낮은 조직화를 가진 대신에 더 '견고한' 요소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가장 가소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연약한 뇌가 딱딱한 '두개골'이라는 데그레션적 골격을 통해 보호되는 것이 그 예다. Богданов (1989), 2권, pp. 126~127.
57) Nunes (2025), Part 1, p. 04.

www.kci.go.kr

기계주의를 향한 이런 낙관적 편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도 이에 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그것을 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유토피아적 기계주의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방식일 것이다. 인간 신체의 기계적 변환을 추구했던 연극 연출가 메이에르홀드의 '생체역학(biomechanics)'부터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는 미래공산주의를 꿈꾸었던 '기계시대의 프롤레타리아 음유시인' 가스테프, 그리고 아르바토프의 '전기화(electrification)'에 이르기까지, 지난 세기 초반 기계의 이름으로 대두되었던 다각도의 유토피아적 지향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보그다노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58] 하지만 보그다노프의 기계주의를 당대의 맥락에 가둔 채 그것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만일 그의 기계주의와 그에 실린 조직화 역량에 대한 확신이 생산지상주의를 넘어, '일원론적' 체계로서의 텍톨로지 자체의 본질과 연동되어 있다면 어떨까? 예컨대, 제이슨 무어로 대표되는 현대의 '일원론'을 비판하는 사이토 고헤이의 경고를 그것과 '겹쳐' 읽어본다면 어떨까?

사이토가 보기에, 최근들어 비판적 환경사상과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에서마저 일원론이 횡행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인간의 자연 지배를 옹호하고 재생산 노동을 등한시하는, 생산지상주의라는 신화에 사로잡히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낡은 이원론적 도식을 개정할 필요가 분명하다 해도 "일원론이 곧 이원론보다 항상 우수하다는 말은 아니다."[59] 그가 보기에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은 "자연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개입과 변형을 통해 지구를 관리해야 한다는 담론에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산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인류세 담론과 양립될 수 있다." "자연의 한계 그 자체를 교조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태도가 "마르크스주의적 프로메테우스주의와 결합되면 유전공학, 지구공학, 핵융합 등의 기술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문제적 결론으로 쉽게 변질

58) 메이에르홀드의 생체역학과 가스테프의 노동조직화론에 관해서는 김수환 (2022a) 2장을, 아르바토프의 전기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김수환 (2022b)을 참조하라.

59) Saito (2023), p. 107.

www.kci.go.kr

된다."[60] 사이토에 따르면, 라투르가 그 전형을 보여주는바, "그의 일원론은 '대상의 일차성'과 '자연의 비동일성'을 무시하며, 그러한 무시는 강한 도구주의적 태도와 더불어 자연 지배라는 프로메테우스적 기획을 강화한다." 사이토는 이를 한 문장으로 명명한다. "이것이 일원론의 위험이다."

그런가 하면, 일원론 및 혼종주의 비판에서 사이토보다 더욱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안드레아스 말름은 아예 무어의 이론적 기획의 핵심을 "마르크스주의의 옷을 입은 고삐 풀린 하이브리디즘"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어가 "닐 스미스와 라투르 같은 사상가들의 철학적 승리를 자본주의 발전 이론으로 수입하는 과제를 떠맡았다"고 꼬집는다.[61] 그는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 라투르의 유명한 명제를 뒤집어 "사실상 상황은 정반대이다. 생존 전망을 극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철저히 창출한 것과 그들의 행함이 아닌 것 사이의 이분법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62]

일원론과 이원론으로 갈린 현대 생태사회주의 논쟁의 전체 구도를 복기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63] 그럼에도 두 입장을 갈라놓는 핵심적인 대립의 지점을 정식화해보는 것은 우리의 논의에도 긴요할 수 있다.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혼종적 일원성과 그 둘 사이의 이원적 구별이라는 큰 대립 구도 아래에는 사실 자연을 보는 결정적인 관점 차이, 더 정확히는 (앞서 사이토가 "자연 그 자체의 한계"라고

60) Saito (2023), p. 110, p. 113 (국역본 194쪽, 201쪽). 이어지는 라투르 관련 인용은 Saito (2023), pp. 129~130. 번역은 국역본을 따르되 일부 수정했다.

61) Andreas Malm (2018), *The Progress of This Storm: Nature and Society in a Warming World*, Verso, p. 180 (국역본 안드레아스 말름 (2025), 『이 폭풍의 전개: 뜨거워지는 세계 속의 자연과 사회』, 김효진 (역), 갈무리. 313~314쪽).

62) Malm (2018), p. 75 (국역본 131쪽).

63) 사이토가 요구하는 것은 존재론적 이원론이 아닌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이되 '비판'의 방법으로는 비동일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Saito (2023), pp. 129~131. 한편, 말름의 경우는 '실체일원론적 속성이원론'을 주장한다. 자연과 사회를 같은 속성으로 보게 되면 현재 환경 파괴의 원인을 지목할 수 없기 때문에 속성이원론은 강력하게 견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Malm (2018), pp. 62~66.

www.kci.go.kr

표현했던) 자연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놓여있다. '사회(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엔 연속적 동일성이 지배하는가, 아니면 둘 사이에는 일원론으로 해소되지 않는 불가피한 단절과 잔여가 존재하는가?

어째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지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통제불가능한 충격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상황이 자연에 대한 절대적 지배라는 프로메테우스적 꿈의 궁극적 실패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실패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반대편의 물음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이다. 인간이 자연에 가하는 영향력의 임계점이 드러난다면,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영향, 곧 자연 편에서의 대응과 반란은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가?

IV. 자연의 복수와 플라토노프라는 짝패

인간이 자연에 더 깊고 강력하게 개입할수록 자연은 같거나 더 큰 힘으로 인간과 사회에 그것을 되돌려준다는 인식, 이른바 '자연의 역습'에 관한 사고는 현대 생태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명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 역습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그 차이의 배후에는 중요한 사상적 맥락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엥겔스의 '자연의 복수' 개념이 그것이다. 이 문제적 개념을 포함하는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은 (서구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사실상 파문된 지 150년 만에) 근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텍스트 중 하나가 되었다.

>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복수하기 때문이다. 처음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승리했을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상이한 효과가 나타나 첫 번째 승리를 통해 거둔 결과를 상쇄하곤 한다.[64]

www.kci.go.kr

포스터에 따르면, 오늘날 역사유물론적 생태학의 핵심에는 마르크스의 '물질대사균열' 이론과 더불어 (그간 부당하게 폄하되어온) 엥겔스의 생태학적 사유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엥겔스의 생태변증법이 마침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인류세라고 단언한다.[65] 한편, 무어를 비롯한 일원론 진영에서는 바로 이 개념에 가장 집중적인 비판을 쏟아낸다. 그들이 보기에 엥겔스의 개념은 자연을 "고정되어 있고 몰역사적인 것"으로 다루는 "자연적 한계의 물신화"이자, 데카르트적 이분법이 체현된 "자연+사회=위기"의 '녹색산술'에 지나지 않는다.[66] 그것을 대신할 보다 생산적인 관점은 "인간과 자연이 생명의 그물을 통해 끊임없이 서로를 공동-생산하면서 생태 위기를 유발하는 세계-역사적 과정을 분석하는 세계-생태론"이다.[67]

이와 같은 대립구도는 자연에 행위성을 부여하는 문제, 이른바 '저렴한 자연'을 착취하는 문제, 마르크스 노동가치론의 재해석 등 여러 이슈와 연결되어 있지만,[68] 이로부터 우리의 관점에서 관건적인 물음을 도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에는 '자연의 한계'에 관한 인식, 더 나아가 자연의 역습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가? 앞서 상세히 살펴봤듯이, 일원론적 시스템주의자 보그다노프는 조직화 기제로서 자연과 인간을 원칙상 구별하지 않는다. 텍톨로지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무기물·생물·사회를 동일한 조직화 원리로 평탄화하며, 총체적 시스템으로서의 그것

64) *Marx and Engels Collected Works*, vol. 25, pp. 460~461; Saito (2023), pp. 55~56(국역본 108~109쪽)에서 재인용.

65) John Bellamy Foster (2020a), "Engels's Dialectics of Nature in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72(6). 이에 관한 더 포괄적인 논의는 Foster (2020b), *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 Monthly Review Press를 참조하라.

66) Jason W. Moore (2015),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Verso, p. 14 (국역본 17쪽).

67) Saito (2023), p. 114 (국역본 202~203쪽).

68) 이런 쟁점들을 둘러싼 논쟁 구도의 개략에 관해서는 앞선 최병두 (2022), 이광근 (2022)의 논문을 참조하라.

www.kci.go.kr

은 조직화와 탈조직화를 오가며 동적 평형의 상태를 구현한다. 문제는 이 때의 자연이 이런 텍톨로지적 총체성의 내부 기제일 뿐인가, 아니면 그것 바깥에 존재하는 모종의 '잔여'로서의 타자성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답은 명확해 보인다. 보그다노프에게 "완전한 무조직성이란 의미 없는 개념"이고 "조직의 절대적 부재는 사유 불가능"하다. 저항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고, 저항하는 것은 이미 활동이며, 활동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텍톨로지의 체계 안에서 조직화 바깥의 잔여란 개념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자연의 역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조직되지 않은 것의 저항일 뿐, 원리상 조직화를 벗어나는 타자성의 개입일 수 없다.

보그다노프의 의미심장한 짝패가 호출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 짝패는 소비에트 작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다.[69] 워크에 따르면, 플라토노프의 주요 저작들은 "보그다노프에게 있던 비관적 음조를 한층 더 밀어붙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의 소설들은 인간 과정과 자연 과정의 동적 평형을 설계하는 일의 불가능성에 관한 전언이다. 흥미롭게도, "보그다노프가 총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인 자들의 관점에서 총체성의 비극을 준다면, 플라토노프는 그것을 아래의 아래로부터(from below the below) 본다." 워크가 "보그다노프와 플라토노프는 함께 취해질 때 우리의 동시대인"이라고 쓰게 되는 맥락이 이것이다.[70] 그런가 하면 체호나드스키는 보그다노프의 보편적 조직화 원리가 그 본질상 "산업사회의 구축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동지애가 "산업 노동 현장을 넘어 동물, 식물, 대지로 확장"되는 플라토노프의 '행성적 사회주의'를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와 명확하게 대립시킨다.[71]

69) Molecular Red 1장과 2장은 각각 보그다노프와 플라토노프에게 할애되어 있으며, Chehonadskih (2023)의 마지막 장인 6장은 플라토노프를 다룬다.

70) Wark (2015), p. 66; p. 69.

71) Chehonadskih (2023), p. 232. 체호나드스키에 따르면 플라토노프의 주체성은 단지 '아래의 아래'가 아니라 '기타인간들(прочие, the others)'이라고 불리는, 조직화의 나머지 잔여(계급범주에 귀속되지 않는 집단적 부랑 빈민)로부터 구성된다. Chehonadskih (2023), p. 42.

www.kci.go.kr

플라토노프의 이런 특별한 세계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후속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72] 다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다. 그의 프롤레타리아 생태학이 엥겔스의 경고와 명시적으로 공명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대 이후 (일종의 플라토노프식 환경선언문으로) 회자된 바 있는 글 「최초의 사회주의 비극에 관하여」(1934)에서 '자연변증법'은 인간, 기술, 자연의 삼각관계를 둘러싼 본질적 명제로서 제시된다.

> 자연은 너무도 가혹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그 풍요로움과 위대함을 누구에게도 내준 바가 없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 역사적 시간 속에서 — 자연은 이미 오래전에 약탈당하고 탕진되어, 마지막 뼛조각까지 빼앗겨버렸을 것이다 […] 만약 물리적 세계가 유일한 자기 법칙, 인정하건대, 근본이 되는 법칙인 변증법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불과 몇 세기 안에 인간들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무의미하게 파괴되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73]

이 글에서 플라토노프는 만일 물질세계의 보편법칙인 '변증법'이 없었더라면 불과 몇 세기 만에 행성 전체가 인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폭발적인 생산력 발전을 이끈 기술의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한다. 자연의 '표면'이 아니라 '내부'로 진입하는 단계의 위험을 경고하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은 마치 섬뜩한 예언처럼 들린다.

> 기계와 심장을 함께 지닌 인간, 그리고 자연 변증법과 더불어 존재하는 인간의 비극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72) 보그다노프의 짝패로서 플라토노프를 다루게 될 후속연구의 핵심토픽 중 하나는 기계와 동식물을 포함한 '비인간' 존재들의 문제다. 플라토노프의 '탈인간중심주의적' 세계에 관한 21세기적 독해의 시도로는 김수환 (2026b)을 참조하라.

73) А. П. Платонов (2011), "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Собрание: Том 8, Фабрика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публицистика, Время, p. 640. 영어본은 Andrei Platonov (2011), "On the First Socialist Tragedy," *New Left Review*, 69, pp. 30~32.

www.kci.go.kr

> […] 과거에는 자연의 '표면'에서 살며 원초적인 힘과 물질의 방출과 폐기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계의 '내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세계는 동등한 힘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74]

여기에 '겹쳐' 읽어볼 만한 현대의 문장이 있다면, 아마도 말름의 아래 언급일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을 식별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들의 권역이 자연적 관계들의 권역을 더 많이 결정했을수록 자연은 더욱더 격렬하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붕괴점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화된 자연의 역설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75]

말름에 따르면,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은 자연만이 아니다. 그와 더불어 시간, 곧 역사가 되돌아온다. 되돌아오는 자연은 인간의 과거가 앞으로 실어 나르는 "어떤 유령적 피조물"인 바, 따라서 "이것은 자연의 복수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의 옷을 입은 역사성의 복수이다 […] 역사적 시간이 자연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듯이, 이제 둘은 함께 되돌아온다."[76] 사라졌던 역사적 시간이 자연과 함께 귀환한다는 마지막 구절은 여러모로 각별한 울림을 준다. 이때의 역사적 시간은 "19세기 초 이래 시간이 흘러온 수직갱들의 함수", 즉 석탄채굴과 관련된 지질학적 시간을 가리키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자연'의 이름으로 재방문하게 되는 100년 전 사상의 시간을 뜻할 수도 있다. 21세기에 되돌아온 보그다노프, '보그다노프 재방문'의 시간이 그것이다. 2025년에 『래디컬 철

74) Платонов (2011), p. 644. 이 대목은 앞서 살펴본 보그다노프의 '세계적 에그레션'과 정확히 반대 부호를 갖는다. 보그다노프에게 조직화의 집중은 기계 기술을 통해 '무한정' 증대할 수 있지만, 플라토노프에게 세계의 내부로 진입하는 일은 같은 크기의 압박을 불러온다. 체호나드스키의 표현을 빌리면, "자연의 자율성은 총체적 조직화의 불가능성을 비춘다"(Chehonadskih (2023), p. 211).

75) Malm (2018), pp. 76~77 (국역본 133~134쪽). 번역은 국역본을 따르되 일부 수정했다.

76) Malm (2018), pp. 77~78 (국역본 134~135쪽). 번역은 인용자의 것이다.

www.kci.go.kr

학』에 실은 체호나드스키 연구서에 대한 서평에서 이사벨 제이콥스는 보그다노프의 '포스트휴먼적 존재론적 환경주의'를 '평평한 존재론'에 연결시키며 이렇게 적은 바 있다.

> 『생태의 변증법』(2024)에서 존 벨라미 포스터는 "미생물에서 구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행위성을 부여하는 포스트휴먼 생태학의 "평평한 존재론"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그것이 정치적 행동의 자리를 남기지 않으며, 세계를 "동일한 존재론적 평면 위에서 순환하는… 무한한 그물망"으로 환원해 버린다고 논한다. 과연 보그다노프의 텍톨로지, 그의 포스트휴먼적 존재론적 환경주의는 "조약돌과 꿈과 전신 신호를 함께 연결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평평한 존재론을 함축하는가? 만일 모든 것이 계열 속에 존재한다면, 그 계열들을 하나의 생태계로 조직하는 것은 무엇인가?[77]

지금까지 우리는, 이 리뷰에서 제이콥스가 던져놓고 답하지 않았던 저 마지막 물음에 나름대로 접근해보기 위해, 자연을 키워드로 한 텍톨로지의 다양한 면모를 추적해보았다. 이 추적의 과정이 확인시켜주는 것은, 보그다노프의 사유가 그렇게 간단히 명제화되기 어렵다는 것, 명백한 대응과 교차의 지점들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유를 오늘날의 '일원론'과 '평평한 존재론', '하이브리드주의' 등과 손쉽게 동일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 과정이 노출시켜 보여준 것은 갖가지 입장과 지향, 관점들이 혼재하며 만들어낸 내적인 모순과 딜레마의 지점들이다. 사유의 종합을 시도하는 첫 번째 자리가 늘 그러하듯이, 어쩌면 보그다노프 사상의 '기원적' 위상 또한 그와 같은 모순적 혼종성에 있을지도 모른다.

균형과 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생태론자의 이미지와, 어쩌면 지금이라면 과격한 테크노크라트로 불렸을지도 모를 프로메테우스주의자의 이미지가 하나의 체계 안에 공존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논의를 결정불가능성의

77) Isabel Jacobs (2025), "Proletarian Tectonics," review of Maria Chehonadskih, Alexander Bogdanov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Radical Philosophy, 2.18, pp. 85~92, p. 89.

www.kci.go.kr

딜레마로 이끈다. 그러나 그것을 우회해버린다면 과거의 것과 우리 자신의 현재가 함께 떠오르는 '지금-시간'의 성좌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 자리가 단지 1세기 전의 과거가 아니라 (자연)과학과 (인문)철학이 강렬하게 융합되는 가운데 '혁명'의 이름으로 인간과 사회가 근본적으로 탈바꿈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변혁의 소용돌이가 안드레이 플라토노프라는 문제적 짝패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기원'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의 비판적 재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www.kci.go.kr

참고문헌

권세은 (2006), 「통합과학으로서 보그다노프의 'Тектология'」, 『슬라브학보』, 21(4), 229~252쪽.

김민아 (2020), 「보그다노프의 『붉은 별』에 나타난 사랑의 문제」, 『노어노문학』, 32(1), 67~96쪽.

김성일 (2017), 「A. 보그다노프의 소설 『붉은 별』에 나타난 유토피아 세계」,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3, 43~66쪽.

김수환 (2022a), 『혁명의 넝마주이』, 문학과지성사.

_____ (2022b), 「보리스 아르바토프 재방문: 히토 슈타이얼과 순환주의(circulationism)의 재발명」, 『히토 슈타이얼: 데이터의 바다』, 국립현대미술관, 401~433쪽.

_____ (2026a), 「알렉산드르 보그다노프와 『텍톨로지』: 번역 소개에 부쳐」, 인-무브 웹진 (https://en-movement.net/644, 2026. 9. 10. 접속).

_____ (2026b), 「프레드릭 제임슨과 발레리 포도로가의 『체벤구르』 겹쳐읽기: '유토피아'와 '죽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98, 37~79쪽.

이광근 (2022), 「21세기 초 생태마르크스주의 논쟁의 쟁점들: 물질대사 균열 비판과 반비판」, 『경제와사회』, 133, 358~399쪽.

이득재 (2015), 「보그다노프와 사회시스템의 문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1, 99~121쪽.

최병두 (2022), 「인류세인가, 자본세인가: 생태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균열」, 『공간과사회』, 32(1), 115~165쪽.

최진석 (2017), 「문화와 혁명, 또는 마음의 정치학: 보그다노프와 프롤레타리아 문화의 (불)가능성 논쟁」, 『슬라브연구』, 33(3), 63~96쪽.

말름, 안드레아스 (2025), 『이 폭풍의 전개: 뜨거워지는 세계 속의 자연과 사회』, 김효진 (역), 갈무리.

무어, 제이슨 W. (2020),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자본의 축적과 세계생태론』, 김효진 (역), 갈무리.

사이토 고헤이 (2025), 『인류세와 마르크스: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이상을 향하여』, 추선영(역), 두번째테제.

Богданов, А. А. (1989), *Тектология: Всеобщая организационная наука*, в 2-х кн., Экономика.

www.kci.go.kr

Платонов, А. П. (2011), «О перв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Собрание: Том 8, Фабрика литературы: Литературная критика, публицистика, Время.

Bogdanov, Alexander (1984), *Essays in Tektology: The General Science of Organization*, George Gorelik (trans.), 2nd ed., Intersystems Publications.

_____ (2016), *The Philosophy of Living Experience: Popular Outlines*, David G. Rowley (trans.), Brill.

Chehonadskih, Maria (2023), *Alexander Bogdanov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Palgrave Macmillan.

Foster, John Bellamy (2020a), "Engels's Dialectics of Nature in the Anthropocene," *Monthly Review*, 72(6).

_____ (2020b), T*he Return of Nature: Socialism and Ecology*, Monthly Review Press.

_____ (2024), *The Dialectics of Ecology: Socialism and Nature*, Monthly Review Press.

Gare, Arran (2000), "Aleksandr Bogdanov and Systems Theory," *Democracy & Nature*, 6(3), pp. 341~359.

Jacobs, Isabel (2025), "Proletarian Tectonics," review of Maria Chehonadskih, Alexander Bogdanov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 after the October Revolution, Radical Philosophy, 2.18, pp. 85~92.

Malm, Andreas (2018), *The Progress of This Storm: Nature and Society in a Warming World*, Verso.

Moore, Jason W. (2015),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Verso.

Nunes, Rodrigo (2025), "From the Organizational Point of View: Bogdanov and the Augustinian Left, Part 1," *e-flux journal*, 152; "Part 2," *e-flux journal*, 153 (https://www.e-flux.com/journal/152/658548/, https://www.e-flux.com/journal/153/663366/, 2026. 9. 10. 접속).

Platonov, Andrei (2011), "On the First Socialist Tragedy," *New Left Review*, 69, pp. 30~32.

Saito, Kohei (2023), *Marx in the Anthropocene: Towards the Idea of Degrowth Commun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k, McKenzie (2015), *Molecular Red: Theory for the Anthropocene*, Verso.

www.kci.go.kr

Abstract

Aleksander Bogdanov Revisited –
Tektology and the Monism Debate in the Anthropocene

SooHwan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or)

This article off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Alexander Bogdanov's universal organizational science, "tektology," within contemporary eco-socialist debates over monism in the Anthropocene. To this end, it closely reviews the scholarship that has driven Bogdanov's 'contemporary revisiting' – Wark (2015), Chehonadskih (2023), and Nunes (2025) – identifying both the productive insights and the philological limits of their readings with respect to labor, metabolic rift, and perspectivism. In the process, the article traces how two figures coexist within a single monist system: the "ecologist Bogdanov," supported by the bi-regulator, the law of the minimum, and plasticity; and the "Promethean Bogdanov," who envisions the total organization of the natural world through machine technology. This tracing is read alongside the contemporary eco-socialist controversy structured by the opposition between dualism (Foster, Saito, Malm) and monism (Moore, Latour). The article concludes that Bogdanov's contemporaneity lies not in the coherence of his thought but in its internal fissures, and that the significance of those fissures becomes legible through his intellectual counterpart, Andrei Platonov.

Keywords: Alexander Bogdanov, Tektology, Anthropocene, McKenzie Wark, Monism, Metabolic Rift, Revenge of Nature, Andrei Platonov

논문 투고일: 2026년 09월 11일
심사 완료일: 2026년 10월 01일
게재 확정일: 2026년 10월 15일

www.kci.go.kr